

## 蠶嶺七賢과 朝鮮前期 隱逸의 文學史的 意味

鄭 景 柱\*

### 1. 序 論

1-1. 동양의 문학사에 있어서 隱逸은 ‘고상한 뜻을 가지고서도 벼슬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서 은거하는 행위나 그렇게 행동하는 고상한 선비’를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隱逸에는 君子嘉遯과 같이 덕성을 갖춘 군자가 때를 만나지 못하여 은거한다는 藏器待時의 유가적 隱遯이 있다면, 일체의 세속적 굴레를 벗어나 정신적 절대자유를 구가하려는 淸虛無爲의 道家的 隱遁이 있을 수 있었다.<sup>1)</sup>

◦ 易經 遯卦 爻辭；九四好遯君子吉小人否 九五嘉遯貞吉 上九肥遯无不利

◦ 莊子の 逍遙遊；乘天之正 而御六氣之辨 以遊無窮者 彼且惡乎待哉！

1-2. 이러한 은둔의 사상은 춘추전국시대를 지나 漢魏 이후의 동양 중세 문학사에서 매우 중시되었다. 魏晉時代에 嵇康 阮籍 등 竹林七賢의 淸談思想이 풍미한 이후로 晉書에서 비롯하여 宋書 隋書 唐書 이후로 正史의 列傳에 隱逸傳이 하나의 관례를 이룬 것이 그 증거이다.

1-3. 우리나라에 있어서 隱逸은 대체로 고려 중엽 무신난 이후 李仁老 吳世才 林椿 趙通 皇甫沆 咸淳 李湛之 등 중국 魏晉時代 竹林七賢을 依倣한다고 표방한 일단의 문인집단이 나타난 때로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麗末鮮初

\* 경성대 교수

1) 이병혁, 고려말기의 한문학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 I 집, 1977, pp. 65~66.

에 이르러 牧隱 圃隱 陶隱 治隱 등 ‘隱’을 표방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은둔의 문제는 문학사의 주요한 주제의 하나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야은과 같은 이는 스스로 不事二君의 절의를 표방하고 평생을 출사하지 않았으니 隱逸이라 할 것이요, 홍유손 같은 이는 그것은 砥柱中流에 비유하기도 받아들였으니, 이 시대에 와서 비로소 은일의 한 전형이 마련되었다 할 것이다. 15세기 중반 癸酉政變 이후에는 절의를 표방하고 관직을 내던지고 은거 하였던 이른바 生六臣이라고 불려진 隱士의 집단이 나타나고, 세조조 이후의 정치현실을 탐탁치 않게 여겨 출사를 거부하는 蠶嶺七賢이라는 은거집단이 나타남으로써, 이 시대에 와서 遺逸을 조정에서 천거 등용하는 사례가 점차 정착되어 간다. 따라서 은일의 문제는 15세기 문학사회사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 2. 蠶嶺七賢의 구성원

2-1. 蠶嶺七賢이라는 이름을 세종의 손자이자 성종의 堂叔이면서 신진사류 중 南孝溫, 辛永禧 등의 은거인물들과 교유하였던 왕실 사람 富林君 李湜(1458~1488)의 시집에 『寄正中百源』이라는 詩題로 ‘自號蠶嶺七賢’이라 한 것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그 시에 ‘옛적에 竹林七賢이 있더니 지금에는 蠶嶺七賢이 있네<sup>2)</sup>’라는 구절이 있다. 正中은 秀泉正 貞恩의 자요, 百源은 茂豐正 摠의 자이다. 성종 19년(1488) 무렵에 죽은 부림군의 시집에 ‘잠령칠현이 언급되어 있으니, 죽림칠현을 따라 은거를 지향한 이 사람들의 모임은 적어도 그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연산군일기 4년 8월조에 의하면 성종 13년(1482) 무렵 南孝溫, 洪裕孫, 秀泉正 貞恩, 茂豐正 摠, 禹善言, 趙自知, 韓景琦 등이 竹林七賢이라 칭하고 동대문 밖의 趙自知의 집에 모여 서로 음주 담소하였던 일을 기록하고 있다. 이 모임에는 明陽正 賢孫, 盧燮, 柳房 등이 나중에 더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 李湜：〈西雨亭集〉，卷上，『寄正中百源』，‘古有竹林七 今有蠶嶺賢’。『正中百源自號蠶嶺七賢』

그들은 '時世不當仕'라고 하면서 죽림고사를 본받아 노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한다. 時世不當仕라는 말은 당대의 정치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이다. 벼슬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세상, 즉 벼슬하여도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는 그러한 부조리한 시대라는 비판을 담고 있다. 그러한 시각 속에서 그들의 은둔에 대한 시각은 여러 가지로 열려 있음을 볼 수 있다.

2-2. 蠶嶺七賢의 주도적 인물인 南孝溫(1454-1492)은 스스로 열여덟의 나이에 상소를 올려 昭陵復位를 건의하다가 위정자들로부터 飾言躁進의 狂童이라는 칭호를 듣고는 '소릉복위 이전에는 출사 않겠다'고 말하고, 평생 동안 출사를 거부한 사람이다. 南陽府 鄉吏의 아들로서 文才가 인정되어 吏役을 면제받았던 洪裕孫은 刀筆吏로서 평생을 보낸 것이다. 그가 蠶嶺七賢에 가담한 것은 일시 吏役을 면제받았던 때이다. 그 일로 무오사화 이후 재주로 유배되었다가 중종반정 이후 풀려나기는 하였지만, 관직에 몸을 담은 적이 없다.

李賢孫(明陽正)은 자가 字世昌으로 태조의 4세손이다. 추강의 <사우명행록>에 의하면 그는 추강보다 13세가 어렸으나, 그 독실한 행실은 김평필에 버금간다고 하였다. 李摠(茂豐正)은 자가 百源으로 太宗의 曾孫이다. 그는 琴才가 있어 正中과 함께 명성이 있었는데, 楊花渡에 집을 짓고 스스로 西湖主人이라 호칭하였다. 李貞恩(秀泉正)은 자가 正中이요, 號를 月湖라 하였는데 역시 音律에 밝았고 爲人이 篤厚自謙하고 識量이 聰明하다고 하였다. 이들은 모두 왕가의 일족이었다.

禹善言은 자가 德父, 號를 楓崖라 하였는데 佔畢齋의 廬幕에서 글을 읽었고, 벼슬에 나가지 않았던 이다. 趙自知는 자가 性之로 홍유손에게 학업을 배웠으며 山水와 遊戲를 좋아하고 功名을 멀리하였다는 사람이다. 韓景琦는 자가 稚圭요 號가 香雪堂으로서 蔭職의 副正이 된 사람이다. 그 밖에 盧燮과 柳房은 <師友名行錄>에 그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행적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다.

2-3. 蠶嶺七賢은 時世不當仕라는 명분 하에 벼슬하기를 거부하였던 인물이다. 이 명분은 출사하지 않았던 그들의 행적에서 뚜렷하게 알 수 있거니와, 그들이 남긴 시문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남효온은 自詠十五首에서

4 韓國文學論叢 第 14 輯

遠道子雲著法言	生憎屈子反離騷
雖然投閣求生辱	千載何如瀕死高

이라 하였고, 屏風八詠에서도 다음과 같이 읊었다.

累我以利名	辱我以爵位
與我改初服	寧守我弊履

曾聞一貫語	豈無東周意
方圓知不周	商歌徹天地

홍유손 또한 吏役에서 풀렸을 적 서울의 圓覺寺에서 지은 다음 시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이다.

與勞非穀強賢藏	爭似丁刀更善藏
雪裡草衣肥益軟	日中木食腹猶望

青山綠水吾家境	明月清風孰主張
如寄生涯宜放浪	還思名教共天長

이들의 이러한 은둔지향적 경향은 韓景琦가 동대문 밖에 집을 지어 놓고 그 주변의 경치를 東臯八詠이라 읊고 남효온 홍유손 등이 이를 차운한 곳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蒲團春睡, 雪簾夜酌, 銀甕煮茗, 藤篋藏書, 土床圍屏, 錦囊投詩, 晴窓看鏡, 博山燒香 등의 동고팔영은 “散人於世百無用 箕山潁水持清名”의 지취대로 ‘拚却世人少所可’ 하고 ‘纖埃不許惹清詞’ 하는 隱居自樂의 감흥을 읊은 것이다.

2-4. 蠶嶺七賢에게는 당대의 隱遁之士로 이름이 높았던 김시습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시습 자신은 〈古今君子隱顯論〉을 지어

四皓之避秦 靖節之不臣於宋 世我乖也 伯夷去周 言聖之清 展禽仕魯 言聖之和 伊尹之隱 言聖之任 其爲聖則一也.

라고 하여 은둔의 정당성을 논한 바 있거니와, 홍유손이 김시습의 죽음을 애도하여 지은 〈祭金悅卿文〉에,

念公言之尋常 不怪行而隱索 雖不講其內蘊 誰不知夫素顏 公雖隱而心妙 知公者莫吾曹

라고 하였다. 김시습의 괴벽한 행동을 索隱行怪라 인정하면서 그 마음의 진실을 알아주는 이는 ‘吾曹’ 즉 자기네들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소충이 말한 吾曹란 누구인가? 篠叢遺稿의 行狀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與南孝溫伯恭茂豐正百源安應世子挺金宏弼大猷爲徒 而從金悅卿遊

김시습을 따라 시종 隱居之士로 자처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 자신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출사를 거부하고 은둔을 택하였던 인물들이 많았다. 생육신의 경우가 그렇거니와 남효운의 사우명행록에 기록된 바로도 鄭汝昌 金宏弼 安遇 辛永禧 등과 같은 이가 그러하였다.

### 3. 隱遁의 名分과 의미

3-1. 蠶嶺七賢의 隱居不仕는 당대는 물론 후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大峰 楊熙止(1439-1504)는 김시습과 남효운의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秋江與東峰 長往高蹈 脾睨一世 嘯傲山水之間 放浪形骸之外 要不失爲身中 清行中權 而其心悲 其跡露 每爲之嗟惋不已. 噫, 世界棄君平耶? 抑君平自棄世耶? (答金君饒書)

대봉은 김시습과 남효운 등의 高蹈跋俗이 伯夷叔齊의 행위와 비슷하다고 본 것이다. 滄浪 成文瀾은 〈漁溪先生傳〉에서 김시습 남효운과 같이 生六臣으로 불려진 인물 중 한 사람인 趙旅의 은둔을 ‘能抗節長逝 遷世無憫 老死而不悔’로 묘사하였는데, 이 또한 비슷한 의미라고 할 것이다.

3-2. 그러나 은둔지향의 행위를 후대의 사람이 한결같이 본 것은 아니다. 16세기 중엽이후 은거의 명분은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었다. 退溪先生은 〈聽松墓碣文〉에서,

吾嘗觀自古高尚之士 多往而不返 偏而失中 若先生之爲人 可往而可返 不偏而得中 其不仕非無義也 時適然矣 而所樂者又在此耳.

라고 하면서, 그 銘에다 ‘我諗太史 誰傳隱逸 庶無落莫 用振頹俗’이라 하였다. 은둔을 지향하는 高尚之士라 하더라도 長往不返의 행위는 중용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陶山雜詠記>에서는,

觀古之有樂於山林者 亦有二焉. 有慕玄虛 事高尚而樂者 有悅道義頗心性而樂者 由前之說則恐或流於潔身亂倫 而其心則與鳥獸同群 不以爲非矣. 由後之說則所嗜者糟粕耳 至其不可傳之妙 則愈求而愈不得 於樂何有. 雖然寧爲此而自勉 不爲彼而自誣矣 又何暇有世俗之 營營者而入我之靈臺乎.

栗谷先生도 <김시습전>에서 ‘佯狂逃世 微意可尚’이라고 하면서도 名教를 포기한 것을 애석해 하였는데, 東湖問答에서 臣道를 논하면서 進而兼善者 三品과 退而者修者 三品을 들고, 그 중 隱者를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高潔清介 不屑天下之事 卓然長往 與世相忘者 隱者也……隱者則偏於遁世 非時中之道也……農門之抱關接與之佯狂 沮溺之耦耕 皆果於忘世 此所謂隱者也. 夫子鳥獸同群嘆 端爲斯人也. 若學者之不仕 則非爲時之不可也 非爲隱之可尚也. 誠以學術不足 先施功業 則代大匠鑿 鮮不傷手 故韜光自守 藏器待用 尺蠖之屈 以求伸也.

은둔의 명분도 출사한 의욕을 가지고 수양을 하는 학자적 은거과 세상을 등지고 출사를 거부하는 은자적 은둔이 있다는 논리이다.

3-3. 그러기 때문에 잠령철현의 은거 행위에 대하여 비판이 없을 수 없었다. 허균은 南孝溫論을 지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孝溫之不仕 非得已 乃不得已也……孝溫欲先正名抗疏而論之 其意盖恃吾君 聖明必我用 故盡其蘊而陳之 冀以定國是……而奈疏入上不敢行. 孝溫已見其無可爲也. 曰士之求用於君者 乃欲行其道也 道不行而徒耽其榮利 則非士也. 乃快意而不就 終身不言祿 以踐初言. 是則志士介夫慷慨不屑富貴者之所爲也 詎可與私其利窮其名者 同日而語哉!

그 글 뒤에 다시 남효온이 年少量隘한 자로 대담한 발언을 서슴없이 한 데 대한 허물을 들추어 내고 있으나, 대체로 남효온의 不出仕를 정당한 것으로 논하였다.

만면 星湖 李瀾은 僊說에서 洪裕孫의 사적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六賢同享於咸安之院 獨漏餘慶者 意者 爲微賤故也. 旣云義烈 則闊闊何與焉. 當時又有逸士柳從先字如登 洪有祭文 可見其爲人 雖志氣同風 蓋泯跡不見者歟. 余嘗謂金南之徒 不降其志 跡露不晦 不得爲中庸 惟耕隱李孟專 見幾而作 托於盲聾 直學士元昊 土室制服 其庶幾矣.

생육신 중에서도 李孟專 元昊와 같이 儒者的 節義에 충실하였던 이는 그렇다 하더라도 金時習 南孝溫과 같은 이는 時中の 도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는 논의이다.

#### IV. 결론 : 蠶嶺七賢의 文學史的 的의

退溪先生の 「過淸平山有感」시에 “東韓隱逸誰修傳 莫指微疵屏百珩”이라는 구절이 있다. 퇴계선생의 이 시는 고려 때 청평산에 은거하였던 李資玄을 칭송한 것으로서 길다란 詩序를 함께 달고 있다. 그 序에 의하면 隱逸이란 “辭榮避位 高蹈遠引 蟬蛻於濁穢之中 鴻冥於萬物之表”한 인물을 지칭한다고 하였다. 또한 國朝人物考에서는 洪裕孫, 慶延, 李賢輔, 韓景琦, 成運, 申季誠, 崔永慶, 權好文 등과 같은 인물을 休逸條에 넣기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蠶嶺七賢은 모두 15세기의 隱逸이라 하여도 무리가 없다.

관직에 나가기를 거부하는 지식인 집단이 출현하는 것은 여말선초의 治隱을 비롯한 일군의 사대부들이 王朝節義를 내세우고 은거한 이후로, 生六臣과 蠶嶺七賢에 와서 비로소 하나의 조류로 나타난다. 이후 무오·갑자·기묘·을사의 사화를 겪으면서 聽松, 花潭, 南溟과 같은 處士들이 濟濟하게 나타나고, 나중에는 來菴, 尤菴과 같은 山林까지 등장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蠶嶺七賢은 생육신과 함께 조선조의 隱逸 기풍을 선도한 집단으로서 의미가 있다.

김굉필 정여창과 같이 穩健持重하였던 處士形의 인물과 남효은 홍유손과 같이 분방한 행동을 삼가지 않던 方外形 人物을 싸잡아서 본다면 다 隱逸의 한 부류이다. 金時習 南孝穩 등의 處身을 高潔한 處士의 그것으로 보든, 또는 長往不返의 方外之士로 보든, 그 당부에 대하여는 후대 儒者들의 안목에서 평론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不出仕와 隱居求志를 결행함에 분명 時

世不當仕라고 하여 非其君不仕라는 유가적 논리에 근거하고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더구나 그들이 은거 후에 영위하고 추구한 이념이, 아직 후대의 退粟처럼 정밀하지는 않을 지언정, 성리학의 이상에 있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儒家的 隱逸之士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보았을 때 조선 중기나 후기에 걸쳐 수없이 등장하는 이른바 隱逸之士의 典型을 이 시기의 蠶嶺七賢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